



살기 좋은 강화, 군민 의견으로 만들어요!!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7월 1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강화군이 오는 7월 10일까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총 규모 10억 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주민 공모로만 운영했던 방식과 달리, 강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제안사업(6억 원 내외)과 읍·면 주민자치 조직이 주체가 돼서 자체 회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신청하는 읍·면 자치 계획사업(4억 원 내외)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매년 내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군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

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한 2억 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다. 단, 계속사업 및 특정 단체 지원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군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공모 기한 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예산과(예산팀)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 및 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들이 살기 좋은 강화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담아내는 제도인 만큼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추진 현황 보고회 개최 및 우기 대비 집중안전점검 대상 현장점검 강화군, 2024년 대한민국 안전·전환 집중안전점검



강화군,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강화군,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강화군이 5일,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10개 부서 담당과장이 참석했으며, 2024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35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추진 현황과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보고회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및 안전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각 소관 부서장이 함께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우기 대비 사전 점검이 필요한 세광아파트 2차 옹벽과 고비임도 인근 산비탈에 대한 현장점

검도 마쳤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행복센터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올여름은 엘니뇨와 라니냐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주민복지 향상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강화군,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12월 착공예정



강화군,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 '순항 중' (조감도)

강화군이 현재 진행 중인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 설계 용역을 10월 중 완료해 12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면 주민자치센터는 총사업비 약 92.6억 원을 들여 양사면 교산리 86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는 다목적사무실, 북카페, 체력 단련실, 회의실, 동아리실, 대강당 등이 설치되며, 외부에는 주민 쉼터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양사면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은 경기도 소재 실악면 행정복지센터 및 광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축물을 견학하며 지자체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장단점을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군은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 추진에 따라 설계 응모한 47개

업체 중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당선 작품에 대해 지난 5월,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이장, 주민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는 (주)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 이승환 건축사가 용역 착수에 따른 과업 수행 계획을 보고하며 당선 작품에 대해 설명했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건축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양사면 주민들이 센터를 더욱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공간 창출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호국 백일장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 전시 낭독 강화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강화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강화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2024년 제69주년 현충일을 맞아, 강화군이 지난 6일, 강화읍 견자산에 위치한 현충탑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현충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충탑 광장에서 거행된 추념식은 강화군 보훈 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군의장, 시의원, 군의원, 해병대 제5여단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추념식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강화군 호국 백일장 공모전'에서 입상한 12개 작품을 전시하고, 최우수 수상자 2명이 헌시를 직접 낭독하는 등 예년의 현충일보다 더욱 그 뜻을 깊게 새기는 행사로 행사로 마련됐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으며 이어, "군에서는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 선양에 만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복합민원 서비스 신속제공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 개최

강화군이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건축허가과 등 주요 민원 부서 담당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민원인과의 갈등, 대민업무에 대한 중압감 등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했고,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민원 불만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되는 민원의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처리, 친절함 대민응대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군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군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포토갤러리 | Photo Gallery |



양사면 DMZ평화의길에 황금조팝꽃 만개



양사면 DMZ평화의길에 황금조팝꽃 만개

요즘 황금조팝나무꽃이 6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DMZ 평화의 길에도 만개했습니다. 황금 조팝나무는 키가 작아 울타리용으로 가로변의 관상수나 공원의 조경수로 많이 심기도 하는데 최근에 많이 피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양수인 황금 조팝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잎의 색이 황금색을 띠게 되죠. 주민들의 힘으로 평화의 길의 의미와 환경을 더욱 밝게해주어 감사의 마음이 큰 6월입니다.

강화군의의회, 제295회 제1회 정례회 개최



강화군의의회 제295회 제1회 정례회 개최

강화군의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3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6월 28일까지 26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 실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오는 7일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간의 강화군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19일부터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행복과 강화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치와 상생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치르는 정례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린다. 또한, 다가오는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신봉기 기자

행안부 추진 강화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12명에 위촉장 전달 강화의 안전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지켜요!



강화군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강화군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강화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대상자 12명에게 위촉장과 안전 활동 조끼 등을 전달함으로써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성인이 참여해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찾고 개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

로즈’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12명의 안전히어로즈는 갑룡초등학교와 강화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이다.

앞으로 이들은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안전 문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안전 신고에 참여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우수할

동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안전 문화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89개 농가 대상 안개 분무 및 냉방설비 지원 강화군, 여름 폭염 대비 축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강화군, 여름 폭염 대비 축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강화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및 폐사 예방을 위해 축사 환경 개선 사업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군은 유관기관과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을 추진할 준비와 함께 축산농가에서도 기상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서 폭염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축사 환경 개선 사업은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개 분무 및 냉방설비를 지원하고 노후한 전기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군비 2억 1,100만 원이 투입됐다.

군은 지난 4월, 사업 신청을 받아 한육우 74개 농가, 젖소 11개 농가, 양계 2개 농가, 양돈 2개 농가 등 총 89개 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6월 중으로 안개 분무 시설 및 선풍기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7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시비와 군비 4,800만 원을 투입해 폭염이 시작되기 전 가축의 면역력을 상승하기 위한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축사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 | campaign |

강화군,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캠페인



강화군,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캠페인



강화군,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캠페인

강화군이 기온상승에 따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증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3일 수협사거리 일대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할 시 발생하며,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주로 음식점, 어린이집,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3월부터 증가해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금지 ▲위생적인 조리

환경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개인위생 및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으므로 음식 조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제153주기 광성제 봉행

신미양요 호국영령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 추모

강화군이 지난 31일, 불은면 광성보 충장사에서 신미양요 당시 순국한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들을 추모하는 '제153주기 광성제'를 봉행했다.

이날 광성제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시의원, 어재연 장군 현손 등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조총 발사, 수자기 계양, 제례 봉행 순으로 진행됐다.

광성제는 1871년 통상 개방을 빌미로 조선에

침입한 미국 로저스제독 함대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어재연 장군 외 조선군 351명에 대한 위령제로 매년 음력 4월 24일 광성보에서 열리고 있다.

미국은 1866년 발생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해 조선에 책임과 통상을 요구하며 아세아 함대와 육전대를 보내 초지진을 함락시켰고 광성보를 공격했다. 어재연 장군과 그의 아우 어재순, 조선 수비군은 열세한 병력과 화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다 전원 순국했다.

이에 강화군은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위국충절을 되새기고자 지난 2022년 충장사를 건립했고, 어재연 장군의 위패를 모셔 광성제를 봉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는 외세 침략에 맞선 항쟁의 보루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고장이다"며, "본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제 153주기 광성제 봉행



제 153주기 광성제 봉행

강화군, 못자리 실패 농가에 예비모 5,000장 공급

강화군이 지난 4일 강화읍 용정리 예비못자리 조성지에 예비모 5,000장을 공급했다.

군은 매년 이상기후 등으로 못자리를 실패해 이양하지 못하거나, 조류 피해로 재이양하는 농가가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예비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월 중하순 저온과 큰 일교차로 입고병 및 뜰묘가 발생해 모내기 후 조류 피해가 발생한 30개 농가에 예비모(삼광) 5,000장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공급한 예비모는 한국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에서 종자 소독부터 육묘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생산했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으로 적기에 이양하지 못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예비모 생산에 힘써 주신 한국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화군, 못자리 실패 농가에 예비모 5,000장 공급

강화군, 농림지·산림지 인접 돌발해충 공동방제 실시

강화군이 지난 3일을 '돌발해충 협업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불은면 고능리에 위치한 과수원 및 인접 산림지역에서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방제 작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공원과가 협업해 진행했으며, 매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및 미국선녀벌레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산림지에 피해를 준다. 이에 강화군은 오는 7월 초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군청 산림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농가 등이 적극 협업해 돌발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은 적기에 농경지와 산림지를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예찰과 협업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농림지·산림지 인접 돌발해충 협업 공동방제

관내 취약계층 대상 2024 사랑의 이브자리 나눔 행사 개최 강화군 새마을회,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불 나눠요!



강화군 새마을회,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불 나눠요!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가 지난 4일, 강화군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 사랑의 이브자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폭염을 이기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 읍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 이불 400개를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생활의 불편 사항 등을 살피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화군 새마을회 조인술 회장은 "취약 계층에게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이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강화군을 조성하기 위해 새마을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새마을회는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두유 100세트 전달 강화군청소년수련관, 강화경찰서에 기부 행사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일 인천강화경찰서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두유 100세트를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수련관과 열매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진행했으며, 직접 만든 간식을 기부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 강화경찰서에 기부 행사 개최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80가구에 영양 가득 간식 나눔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 가득 간식 나눔

강화군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춘흠)는 지난 13일 사랑의 간식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 간식인 계란과 요구르트를 준비해 80세대를 직접 방문하며 전달했다.

전춘흠 위원장은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영양 간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순규 양도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뜻을 모아 행사에 동참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가면 적석사, 자비쌀 나눔 행사

강화군 내가면 고천4리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산 낙조대 적석사(주지 제민 스님)에서 지난 3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0kg의 공양미 150포를 기탁했다.

주지 제민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 관내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도들과 마음을 모았다”면서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영진 내가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뜻을 모아 기부에 동참해 주신 주지스님을 비롯한 적석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 받은 쌀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내가면 적석사, 자비쌀 나눔 행사

화도면 농촌지도자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물 기탁

강화군 화도면 농촌지도자회(회장 김근석)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검은콩두유 55상자를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물품은 덕포리 화단의 제조 작업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

김근석 회장은 “생활 속에서 간편히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검은콩두유로 구입했다”며,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연 면장은 “주변 이웃들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농촌지도자회에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물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인분들께 직접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화도면 농촌지도자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물 기탁

하점면 새마을부녀회, 여름 맞이 봉사 활동 화단 제초 작업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 이불 전달

강화군 하점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윤옥)가 지난 3일 이강3리 도로변 화단의 제초 작업을 전개했다.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고, 앞으로 필 사계절 꽃들을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서, 지난 4일에는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 이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부녀회 회원 16명이 참여해 관내 소외계층 및 홀몸 어르신 56세대에 여름 이불과 화장지를 전달했다.

서윤옥 회장은 “부녀회 활동을 통해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시원하고 건강한 선물을 전해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어서 여름 김치 나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상 하점면장은 “바쁜 일정과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도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점면 새마을부녀회 여름 맞이 봉사 활동

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들께 정성 가득 식사 대접

강화군 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종숙)가 지난 3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위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이는 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행복지킴이’ 행사로,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기부금을 활용해 경로당을 방문한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장종숙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고천1리를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2개소의 경로당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진 내가면장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들께 정성 가득 식사 대접

배준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우리 공항 주변지역은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것”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7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

지원 △ 각종 인·허가 의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구축했다.

공항경제권이 도입되면 앞으로 전국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방시대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김해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등 공항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유관 산업과 필요한 기반시설이 많은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유관 사업 도입과 기반시설 유지·보수 교육 훈련의 수요가 높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공항경제권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협의회’ 실무 논의 참여 등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공항경제권 도입을 통한 고급일자리 유치를 약속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인천 천사지원금, 6월 10일부터 접수 ... 1세~7세까지 연 120만 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일환 /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접수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천사지원금’ 검색,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접수)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의 ▶ 미추홀콜센터 ☎ 032-120
또는,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고

강화산성을 쌓다



강화산성 동문

이경수

강화산성, 강화부성

지금 강화읍내를 빙 둘러 돌로 쌓은 성곽이 있지요. 일부 구간은 끊어졌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산과 북산 그리고 견자산으로 이어집니다. 성을 쌓으면 사람들 드나들 출입문도 내야죠. 그래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문 근처의 마을을 ‘동문안’, ‘서문밖’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의 남대문과 동대문은 사실 죽은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강화의 성문들은 지금도 주민들이 오고 갑니다. 현대인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문인 셈입니다.

이 성곽이 1964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강화산성(江華山城)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강화산성’이라는 공식 이름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성이란, 산에 쌓은 성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아요.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만 산성으로 들어가 외적에 맞섭니다. 강화에서 찾자면, 전등사가 있는 정족산성(삼랑성)이 전형적인 산성입니다.

강화산성은 산을 연결한 성곽이지만, 기본적으로 읍치를 감싼 읍성입니다. 당연히 성안에 수많은 사람이 거주합니다. 사료에서도 강화산성이라는 호칭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주로 강화읍성(江華邑城), 강화내성(江華內城), 강화부성(江華府城)으로 칭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강화부성입니다. 강화부성은 강화유수부성의 줄임말

입니다. 문화유산 공식 호칭으로 ‘강화유수부 동헌’, ‘강화유수부 이방청’을 쓰고 있습니다. 강화산성도 ‘강화유수부성’ 즉 ‘강화부성’으로 이름 정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강화읍내에 성곽을 처음 쌓은 것은 세종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강화유수부가 아니라 강화도호부였으니까 강화도호부성이 되는 거죠. 일추 따져서 둘레가 2km 정도였습니다. 동쪽으로 성공회성당, 서쪽으로 성광교회를 넘지 않는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보수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강화산성으로 확대해서 다시 쌓은 것이 숙종 때입니다. 1709년(숙종 35)에 시작해서 1711년(숙종 37)에 완공했습니다. 전체 길이는 7,122m입니다. 예전의 부성이 2km 정도였는데 새로 쌓은 부성은 7km가 넘으니, 상당히 넓게 확대한 것이죠.

강화에는 질이 좋은 석재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돈대를 쌓고 외성도 돌로 개축하고 이렇게 강화산성도 돌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포 문수산성도 강화의 돌을 옮겨다 쌓은 것입니다.

남산을 어찌하리

강화산성을 쌓기로 결정한 것은 오래전이었습니다. 여러 해 뜰을 들이다 뒤늦게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조정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견이 갈렸느냐. 남산이 문제였습니다.

남산을 포함해서 넓게 쌓을 것이냐, 아니면 남

산 빼고 동라천 북쪽으로만 쌓을 것이냐. 숙종은 남산을 포함해서 쌓아야 한다고 했지만, 신하들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노동력과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걱정한 겁니다.

남산까지 포함하려면 성곽이 동라천을 건너야 하고 그러려면 동라천 아래위로 수문까지 세워야 합니다. 신하들은 수문 건설의 어려움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산 빼고 예전의 부성보다 조금 크게 사각형 모양으로 성곽을 쌓고, 견자산과 남산에는 각각 사각형 모양의 작은 성, 그러니까 돈대 같은 걸 쌓기로 한 것입니다. ‘뫼’ 자 모양의 강화산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709년(숙종 35)에 일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강화유수는 박권입니다. 1710년(숙종 36), 숙종은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을 강화유수로 임명합니다. 민진원은 이미 1705년(숙종 31)부터 1707년(숙종 33)까지 강화유수를 지낸 사람이예요. 그때 선두포 축언을 해냈습니다. 근데 다시 유수로 온 겁니다.

민진원이 부임해서 공사 현장과 지형을 두루 살펴봅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남산을 포함해서 쌓아야만, 부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남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자 영의정 이여가 말했습니다.

“남산을 포함하게 되면 쌓는 일이 갑절로 늘어 납니다. 성이 너무 넓으면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쌓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강화산성 남산 구간

우의정 김창집도 말합니다.

“소신이 일찍이 형세를 보았는데, 남산에서 정자산까지 둘러쌓으면 공역(功役)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영의정과 우의정이 남산을 제외한 축성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숙종이 전 강화유수 박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권이 대답합니다.

“만약 남산을 포함한다면, 수문 두 개도 크게 설치해야 하는데 공력이 너무 과하게 듭니다. 신이 본부의 장교들과 거둬 지세를 살펴보고 터전을 헤아려 보았는데, 남산에는 작은 성을 쌓고 정자산에는 돈대를 설치해서 부성과 품(品)자를 이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진원 편을 들어주는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대신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남산 빼고 부성을 쌓으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이제 민진원은 조정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맥빠진 상태로 강화로 돌아옵니다.

밤을 새우며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품(品)자 성을 쌓으면 외적의 침략시 강화를 지킬 수 있나? 만약 외적이 부성을 공격하기 전에 남산과 견자산의 돈대부터 점령한다면? 남산과 견자산에서 읍내 부성을 내려다보며 포격을 한다면?

백번을 생각해봐도 아닙니다. 죽 쬐서 개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품자 성은 위험하다, 남산을 포함해서 쌓아야만 지킬 수 있다! 민진원의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민진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제 생각은 남산 포함해서 하나의 부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과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맘먹고 품(品)자 성을 쌓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진원은 달랐습니다. 다시 입궐합니다. 숙종에게 아뢰입니다. “신이 밤낮으로 헤아려 보고 품자 성이 절대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하나요, 조정 대신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전! 이번에는 대신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진원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민진원이 임금에게 가기 전에 먼저 대신들을 만났던 겁니다. 자기 소신을 거둬 밝히며 설득했습니다. 이리저리 다 따져보니 작은 성 세 개 쌓는 거나, 큰 성 하나

쌓는 거나, 들어가는 인력·물력이 별 차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민진원의 뜻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숙종은? 당연히 찬성이지요. 애초 남산을 포함해서 부성을 쌓으라고 했던 숙종입니다.

이제 민진원 유수의 뜻대로 남산을 포함한 하나의 부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의 강화산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축성 기간을 다시 따져봅니다. 이론상 1709년(숙종 35)부터 1711년(숙종 37)까지 햇수로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민진원 유수 주도로 쌓은 시기만 축성 기간으로 보는 게 더 실제에 가까울 겁니다. 민진원이 강화유수로 임명된 때가 1710년(숙종 36) 4월입니다. 윤7월에 돌 뜨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1711년(숙종 37) 1월부터 본격적인 축성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말쯤에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축성 기간은 대략 4개월이었습니다.

품(品)자 성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민진원 유수, 훌륭하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강화유수로서 소신 갖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적당히 하다가 임기 마치고 떠나도 그만인데, 그는 진정으로 나라를, 강화도 방비 시설의 효율을, 고민하고 또 실천합니다. 필요하다면 윗사람들과의 대립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강화산성은 누가 쌓았을까

돈대는 승군과 어영청 군대가 쌓았고, 강화외성은 삼군문, 그러니까 금위영·어영청·훈련도감 병력이 쌓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강화부성을 쌓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의외로 강화산성 쌓은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정확한 기록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된 사료들을 종합해 볼 때, 강화 주민들이 직접 쌓은 것 같습니다. 조정의 관련 논의를 따라가 보지요.

1685년(숙종 11)에 숙종은 삼군문이 합심해서 강화부성을 쌓으라고 하면서 우선 금위영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축성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708년(숙종 34), 조정에서 강화 주민에게 쌓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공조참판이던 민진원이 반대합니다. 강화 백성만으로는 쌓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수만 명의 군정을 징발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조판서 이인엽은 돈대 쌓을 때처럼 승군을 쓰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신하들 이야기를 다 들은 숙종이 정리합니다. “강도 백성만으로 축성하기 어려우니 승군을 징발하여 쓰되 삼군문에서 협력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숙종의 말을 따르면, 강화 백성과 승군과 삼군문을 모두 축성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709년(숙종 35) 2월, 축성이 임박한 시점, 조정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분분합니다.

숙종의 명으로 강화도에 와서 두루 살피고 돌아간 부호군 조태구가 말합니다. “강화의 남정이 9,000명이니 이들에게 쌓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굳이 승군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삼군문에서 물력(物力)을 돕도록 하고, 부성 쌓는 것은 본부(강화유수부)가 책임지고 하라고 명했습니다.

강화 주민, 승군, 삼군문을 모두 불러 쓰라고 했던 숙종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강화유수부가 책임지고 쌓되 경비는 삼군문에서 보태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 주민들이 강화산성을 쌓은 것입니다.

강화유수 권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강화 말고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강화유수는 진무영 진무사입니다. 진무영에 속한 인근 외영 고을에서도 일정 규모의 인력을 불러들여 강화산성 축성 공사에 투입했을 것입니다.



강화산성 북산 구간

기고 강화군의의회, ‘강화갯벌 관광활성 연구회’에 기대가 크다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군의의회에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가 최근 발족했다. 발족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의회 안에 강화갯벌을 연구하거나 보전 관리를 위한 연구회가 없었으나하는 의아심부터 낫다. 이제라도 강화 갯벌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제대로 활동하려면 할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다.

강화 갯벌이 세계적인 보물임은 알만한 사람이다. 강화도는 동서남북 사방이 갯벌이다. 서울이나 인천, 그 밖에 수도권에서 강화도로 오려면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야 한다. 먼저 눈에 띄는 게 강화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강과 갯벌이다. 초지대교를 건너 동막해수욕장 방향으로 가다보면 해안가를 따라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을 볼 수 있다. 강화도 북쪽의 갯벌은 북한과도 연결된다. 연평도와 강화도, 교동도 해안 갯벌이 북한 해주항까지 이어진다. 남으로는 장봉도,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로 연결되어 있다. 강화도 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갯벌 중의 하나이다.

강화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갯벌은 캐나다의 동부 해안, 미국의 동부 해안과 북해 연안, 아마존강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힌다. 갯벌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자연정화 활동으로 흔히 갯벌을 자연

의 콩팥이라고 불린다. 갯벌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은 염생식물과 함께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된 육상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정화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강화도 갯벌에는 한강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유입되며, 이곳에서 분해되고 그 오염 농도가 줄어 든 후 먼 바다로 퍼져 나간다. 강화도 갯벌은 자연정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서해 적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은 갯벌의 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강화도 갯벌은 수도권과 근접하여 과거부터 개발 압력이 높아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항상 대립해왔다. 강화도 갯벌은 오래전부터 매립되어왔다. 현재의 강화도 해안선이 비교적 큰 굴곡없이 부드러운 건 매립이 인해 해안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매립 이전의 고려 시대 지도나 자료를 살펴보면 해안선이 한없이 꾸불꾸불해 날카로운 형태였다. 이른바 리아스식 해안이라나 뭐라나. 강화도의 현재 해안선은 고려시대 이후부터 간척사업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 둥글둥글 해지거나 부드러워졌다. 1910년과 1997년 지형도를 비교하면, 일제강점기 이후 간척사업으로 강화도 남부지역의 염생습지는 거의 사라졌다. 간척사업과 한강 담수의 유입에 따른 퇴적과 침식 현상으로 석모수로 방향의 해안선은 바다 방향으로, 염하수로 방향은 오히려 강화도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했다.

강화도 인근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건설은 강화도 갯벌의 퇴적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0년에 강화도 남단과 석모도, 불음도 등 주변 3억㎡의 갯벌을 보호·관리토록 했다. 강화도 일대에 머무는 세계적인 희귀종인 저어새를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하였고, 2004년에는 인천의 영종도~무의~영흥도 주변 갯벌 156km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같은 갯벌 보호정책은 갯벌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강화갯벌을 활용한 콘텐츠 모색 및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연구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가 갯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알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주기 바란다. 과한 욕심이긴 하지만 강화도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자산인지를 강화군민과 인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줬으면 한다.

사족으로 강화갯벌센터를 소개한다. 강화도 남단 동막해수욕장에서 머지않은 곳에 있다. 갯벌의 모든 것과 이곳을 찾는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갯벌과 생물, 갯벌의 중요성 등 재미있는 갯벌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어새는 물론이요 개구쟁이 농게의 힘 자랑도 볼 수 있다. 주소는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 강화갯벌센터
☎ 032) 930-7064, 7065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6월 6일 8시부터 9시30분경 강화군내 버스 안의 모습
흰 모자에 미색정장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으신 6.25참전 용사들!

제69주년 현충일을 맞아, 견자산에 위치한 현충탑 광장에서 갖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달리는 버스 안이 분주하다.

몇시 버스 탔냐, 누구는 못 탔는데 어찌나! 여기 저기 전화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옛 전우들을 챙기시며 차가 달리는 40분내내 매우 고령의 나이에도 흐트러짐없이 품격있는 자태를 유지하시며 현충일 행사에 가시는 모습이였다.

다른 지역 군내 버스 안의 모습도 마찬가지로인 듯한 모습이였다고 한다.

버스안에 일반인은 두 분을 제외하고는 빈자리 없이 이분들이 탑승을 다했지만 일반인들 때문에 뒤 사진은 찍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IMF,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힘들었노라고들 하지만 이분들께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건강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글과 이 사진을 제보해 왔다.

- 서정진 기자

강화경찰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경광등 지원!!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3일 고령화 사회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령의 농업종사자들이 일손을 놓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후사경 등 야간 식별장치가 부실한 농기계(경운기 등)를 운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농기계(경운기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광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교통안전 경광등은 총 165개를 제작구매하여 교통외근 및 지역관서 근무자가 순찰중에 후사경 미 부착 농기계(경운기 등)를 발견시 현장에서 바로 부착해주어 고령의 농업종사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낮고 반사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추돌사고 위험 등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가벼운 충돌

에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강화군의 지리적 특성상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신고가 지연되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매우 크다.

경광등을 지원받은 농업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몰 후 경운기 등 농기계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시, 상대방들이 점등된 경광등으로 인해 농기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됐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농기계 경광등 지원으로 농번기나 야간에 잦은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농기계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강화군의 농촌지역 농업인들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광등 부착사진



독자 여러분의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미래교육의 방향을 찾는 '강화에듀투어' 시작 '강화에듀투어'로 전국 학교들과 미래교육을 꿈꾸다



2022 강화에듀투어 단체사진

강화에듀투어의 출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강화도 생태·평화·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찾고자 '강화에듀투어'를 시작했다.

이는 기존 힐링 위주의 관광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학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적 요소들을 담아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인천 교육관계자간 비전 공유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22년엔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강화에듀투어를 개시하였다.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강화에듀투어

강화에듀투어는 강화근대 교육사를 듣고 보며 교육의 성장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역사 깊은 학교 기관과 강화의 생태·문화 교육의 현장을 탐방하면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얻게 되었다. 이에 2023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연수 대상자를 확대해서 총 8회 240명의 연수생이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서오시겨!' 개강식을 시작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인천남정평화교육원에서의 평화교육과 평화의 섬 교동도를 걸으며 실향민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했다. 또한 강화 역사 속 근대교육을 탐색하기 위해 보창학교 표지석을 거쳐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 또는 강화교육의 역사를 간직한 합일초와 강화초를 탐방하기도 했다.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강화에듀투어는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도에 가

보자'라는 제목으로 sbs 모닝와이드에도 방송된 바 있다.

성장하는 강화에듀투어

강화에듀투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의 10대 핵심공약인 인천 3대(강화·섬·에코) 에듀투어 중 하나이다. 강화에듀투어가 성장하기 위해 강화 역사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협의를 연간 3~4회 운영하면서 교육여행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를 통해 2024년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금풍양조장과 온수리 성당을 교육자원으로 발굴하여 '상생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보다 운영 횟수와 참가 인원수를 늘려 미래교육 여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상반기 동안 서울, 경기, 대구, 울산, 광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연수생들과 함께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연수가 6회 운영되었고, 하반기에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4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교장은 "강화에듀투어가 강화도 속살을 고스란히 깊게 파고드는 살아있는 연수였고, 평화를 생각하며 교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돌아봄의 순간들이었다. 학교에 가서 강화에듀투어 교육내용을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지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고, 울산의 중학교 교장은 "틈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강화의 역사와 유적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설문을 통해 "조금은 뽀뽀해 보이는 일정이지만 알차고 보람있는 연수로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고 많은 연수생들이 의견을 남겨주기도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계자는 "강화에듀투어가 미래교육연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되어 강화도가 전국의 현장체험학습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협력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정진 기자



개강식



인천남정평화교육원에서 평화를 생각한다.



함께 걸으며 강화역사 속 근대교육과 미래교육을 생각한다.

강화군, 청소년기 자녀 둔 부모들의 역량 개발 위한 부모 교육 진행



강화군 청소년기 자녀 둔 부모들의 역량 개발 위한 부모 교육 진행

강화군이 지난 31일,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스스로 상처 내는 아이들’을 주제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부모 교육은 올해 총 4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중독과 관련해 부모의 역할과 청소년 미디어 문제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질 계

획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자녀 양육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한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청소년의 자살과 비자살적 자해에 대해 가정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처럼 군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와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양육자의 올바른 대처방안을 습득함으로써 강화군에 건강한 가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모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의 자해 행동으로 그동안 심적으로 힘들었고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늘 고민이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게 됐고 부모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 부모 교육, 관계기관 실무자 교육, 청소년 안전망 사업 등 강화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군,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 캠페인 실시

강화군이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금연지도원 및 실버 금연환경지킴이와 함께 금연 플로깅(줍다+조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협사거리를 기점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담배꽂초를 줍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더불어, 합일초등학교에서 등굣길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며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관내 금연구역 3,601개소(5월 기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화군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 캠페인 실시

강화군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강화군이 예비 엄마·아빠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는 시술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여성 기준 주소지의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포함)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검사 희망자는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한 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김포



삼성인쇄광고기획이 통진에도 멋스럽습니다!!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 명함
- 통상배너
- 패스인쇄
- 제본
- 행사책
- 달력
- 수첩
- 명패
- 깃스
- 복사
- 무선
- 문
- 스티커
- 전첩
- 현포
- 쇼스
- 기출
- 커지
- 장막
- 스터
- 백링
- 품



최신시설
장비완료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 디자인 전문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1-988-9225 Fax. 031-988-9226
☎ 010-9755-6844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34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